

한국영농신문

2025년 5월 19일 월요일(음력 4월 22일)

기고



청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비밀 열쇠

박균환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공직사회는 국민을 위한 봉사의 현장이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뢰의 핵심에는 '청렴'이 있습니다. 청렴이란 단순히 부패하지 않는 것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투자·출자, 재정 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사의 모든 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청렴"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습니다.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접촉, 민원인의 사소한 부탁 등 관행이라 여겨졌던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작은 봐주기가 큰 불신을 만들고, 일시적인 편의가 공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목민심서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은 "청렴은 수령의 본무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고 모든 덕(德)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며, 청렴하지 않은 마음가짐으로는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렴은 오래전부터 공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로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점은 4차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행정학회 연구조사에 따르면 국가 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 GDP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청렴도와 경제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부정부패를 근절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와 개혁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으며, 청렴(淸廉)을 강조하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정부패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일정한 지역이나 집단에 있어서의 관행적 습관 등이 있어서는 아닌지. 그래서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관습은 버리고 정상적인 것만을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일을 하다 보면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하고 범죄행위를 무심코 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본디 청렴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며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보고, 느끼고, 행동하며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부패를 습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과거의 행위를 그대로 학습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조직의 리더부터 모범이 되어 관행과 관습의 잘잘못을 따지고 개혁하려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조직 문화의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관습을 버리는 습관을 길러간다면 청렴한 세상이 어느덧 우리 곁에 다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렴! 그것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비밀 열쇠일지도 모릅니다.